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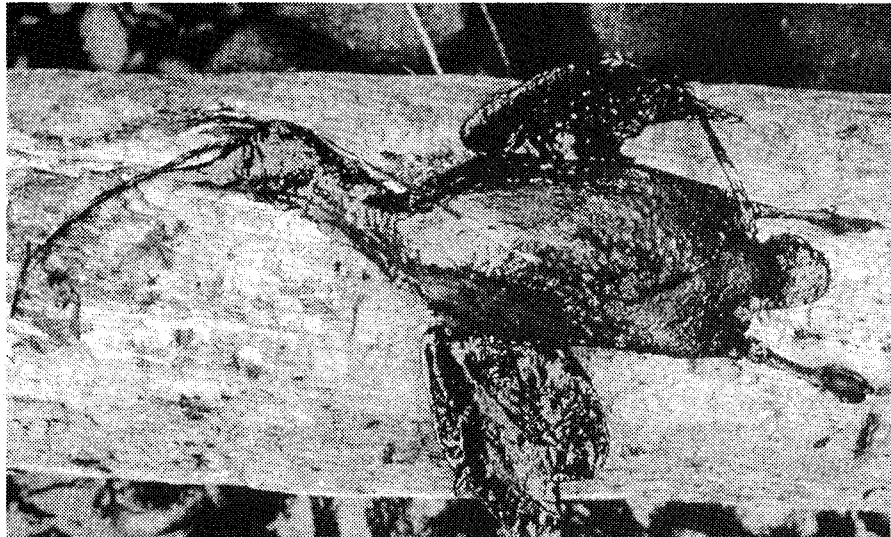
□서울시와 성남시 환경오염 비교분석

집비둘기가 전해주는 서울환경 적색경보

서울 환경오염 성남 비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 두 표

<호남대 생명과학과 교수>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생태계의 환경정화시스템 변화를 초래하여 자연과 인간생활을 파괴한다. 위 사진은 원유에 뒤덮여 질식사한 바다새이다

지에서 흩어진 곡식 낱알을 주어 먹기도 하고 쓰레기 집하장에서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찌꺼기, 빵조각 등도 즐겨 먹는다. 이러한 식습성은 오염물질의 체내 축적을 가속화시킨다. 집비둘기들이 주로 먹이를 찾는 도로 변의 먼지 속에는 많은 대기오염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먼지 입자들이 먹이에 묻어 소화기를 거쳐 집비둘기 체내에 축적된다.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보유하고 있는 오염물질은 호흡시 허파를 통해서 체내에 축적된다. 오염물질의 체내 축적에 대한 기여율은 후자의 호흡기 경로가 전자의 소화기 경로보다 3배 정도 크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집비둘기의 체중 Kg 당 공기 흡입량도 사람보다 3.5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91년도에 서울시와 성남시에

서 각각 채집된 집비둘기의 중금속 오염정도를 조사·비교해 본 결과 아연과 카드뮴 레벨은 비슷하였으나 철, 구리, 납의 레벨은 서울지역 집비둘기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납의 경우는 간, 콩팥, 뼈와 같은 조직에서는 10배 정도 높았고 허파조직에서는 5배 정도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시의 대기중 납오염이 성남시에 비해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울 시민의 건강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기중의 납은 주로 자동차의 유연 휘발유와 스파이크타이어의 편에서 유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생태체에서 해모글로빈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여 빈혈을 일으키며 탄수화물

대사와 에너지 생산을 저해한다. 특히 뼈에 많이 축적되어 뼈의 발육을 지연시키므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죽은 집비둘기의 내장을 해부해 본 결과 위 속에는 풀이 날카로운 닭뿔과 대나무 조각이 걸려 있었으며 모래주머니 속에는 많은 수의 플라스틱 조각, 철사조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몇몇 집비둘기는 구리 조각을 삼켜서 구리 중독에 걸려 죽은 사실도 밝혀 졌다.

한편 집비둘기의 발가락을 조사해 본 결과 성남시의 집비둘기는 모두 완전하였으나 서울시의 30%정도는 발가락이 잘려 나갔거나 기형이었다. 이들은 모두 철사줄이나 나일론 줄이 발가락에 감겨 있었다.

사람들이 아무런 의식없이 쓰다버린 대나무조각, 철사줄, 플라스틱 용기 등 생활쓰레기가 새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비둘기는 우리 생활 환경을 대변해 주는 동물로 이들을 통하여 환경 오염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환경변화의 부작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서울·성남의 집비둘기 평균 납농도 비교(단위: ppm)

조직	서울시	성남시
간	1.99	0.18
콩팥	7.27	0.59
허파	0.50	0.12
뼈	59.1	5.14

강 단 시 론

불황 속 대학의 경쟁력

정부는 작년 10월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을 확정, 시행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여러 기업체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앞으로 4년간 단순기능인력의 공무원 1만 여 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의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한 총액을 동결키로 하였다. 또한 각 기업들도 비용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바, 몇몇 기업들은 임직원 급여동결, 특근안하기, 결재시간 단축하기, 전자우편 사용권장 등의 공적인 비용절감 활동은 물론 술자리 2차 안하기, PC기기, 사적인 전화 자제하기 등의 일상생활 속의 절약정신을 강조하는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처한 무역수지 적자 및 구조적인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 내부의 군살을 제거하고 비효율을 제거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WTO체제, OECD 가입 등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무역개방, 통상압박 등을 고려할 때 2000년대에는 경쟁우위가 없는 기업, 조직은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시점에 경쟁력 향상 운동은 분명히 우리의 사회, 기업,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미래를 대비한 중요한 포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쟁력이란 무엇인가? 경영학의 관점에서 경쟁의 개념이 경영전략과 연결되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라고 얘기할 수 있다. 70년대 우수한 품질을 앞세운 일본의 전자제품, 자동차 등이 미국 시장에 상륙하여 시장을 크게 잠식하면서 미국의 산업

은 전반적인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경쟁에 대한 의식이 강력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70년대 미국 기업들의 위기감은 80년대 초 미국 NBC방송의 "일본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못하는가?" (If Japan can, why can't we?)라는 TV 프로그램만 봐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으며, 80년대 중반 마이클 포터 교수의 경쟁 전략(Competitive strategy), 경쟁 우위(Competitive advantage) 이론 등으로 발전된다고 할 수 있다. 경쟁의 개념은 세계화, 개방화와 더불어 90년대에 더욱 강조되었으며 21세기를 맞으며 가장 중요한 경영의 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비록 경쟁이론은 위기의식에서 태동하였으나 이런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조직이 바람직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수의 연구 및 교육능력, 시설투자, 학생수준, 행정효율화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 글에서 대학의 경쟁력 향상방안을 거창하게 늘어 놓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쉽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 단지 우리가 경쟁사회가 도래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들을 간과하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자. 간단하게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도 일일이 복사하고 우편함에 넣으러 가고 하는 비효율은 없는가? MT다 뭐다 해서 밤새 술마시고 그 다음날 수업을 못 들어서 허겁지겁 친구 노트를 복사하는 비효율은 없는가? 이제는 대학교도 품질경영을 통한 효율화를 이룩할 때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을 그 구성원들이 인식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서영호
<정경대 경영학과 교수>

우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힘들다. 연행에 대한 공포심으로 집에 들어갈수도 없고 일정한 잠자리를 구할수도 없다. 방학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의식주를 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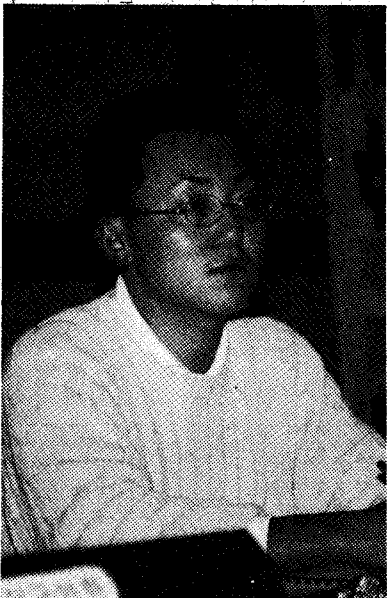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고충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후배들이 학생운동에 대한 회의로 힘겨워 할 때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점이다.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이겨내는데 힘이 되는 것은 나를 믿고 총학생회를 믿는 학우들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의식있는 학생들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나를 지탱 해주고 있다.

(김운용 기자)

□ 인터뷰-한총련 관련 수배중인 수원캠퍼스 부총학생회장 김세훈(회계 4)

자체적 오류탈출만이 한총련 살 길



현재 한총련은 정부의 이적단체규정과 와해움직임, 국민신뢰의 상실이라는 막대한 골목에 와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학교 총학생회는 정부의 탄압방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한총련 불탈퇴입장을 발표하고 한총련 자체각성을 통한 세력 재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우리 신문사에서는 한총련과 관련 현재 수배중인 부총학생회장 김세훈(회계4)을 만나 총학생회의 구체적 입장과 앞으로의 재건사업 등을 살펴보고 단체의 대표가 아닌 한 학생으로서의 부총학생회장의 신상, 의견 등을 통해 한총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정립 해보고자 한다.

현재의 한총련은 국민대중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세력 자체 내에서도 구조적 모순

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구조적 모순이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과거 학생운동은 군부독재라는 민주주의의 커다란 위협요소를 타계하고자 폭력시위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에서 구시대 학생운동의 모습만으론 학생운동의 이념과 열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폭력으로 상실된 국민적 신뢰는 학생운동의 자멸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의 한총련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모순이 표출되고 있는 한총련에 굳이 남고자하는 총학생회의 입장은

한총련은 지금도 엄연한 학생운동의 구심점이다. 자체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책발안이나 표현

방식의 문제일 뿐이지 한총련 근본에 대한 문제점은 아니다.

우리 총학생회는 한총련 중심에서 서서 국민들에게, 학우들에게 거듭나는 학생운동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요즘 시행되고 있는 생활문화운동, 대토론회 등이 그 일환이다.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한총련 와해움직임에 대해서는

한총련 와해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이념에 어긋나 학생운동을 붕괴시키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탄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뿐 사회발전이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운동의 혁신은 비탄압 상황에서 학생세력 자체 내의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총련 관련 수배중인데 생활의 어려움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사회 단신

'정치연대' 창간호 발간

정치연대에서는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상황과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전진을 위해 지난 1일 정치신문 '정치연대' 창간호를 발간했다.

이번 창간호에는 오세철 대표의 발간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갖는 의미, 그리고 정치연대 출범의의와 전망, 정치연대에게 바란다. 등을 주요기사로 실고 있다.

신문 '정치연대'는 격주로 발간된다.

正道경영·초우량LG

단돈 100원으로
10억원을 따낸 남자?



LG 사내 벤처사업팀 MECA팀의 임철수 씨,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는 입사 3년째의 사원이었지만 지금은 창업자금 10억원을 손에 쥔 여전한 자기사업가입니다. 그의 사업계획은 공중전화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교육사업. 100원짜리 동전으로 공중전화를 걸다 떠오른 아이디어가 LG 사내 벤처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회사로부터 자금과 기술 등의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따낸 창업자금 10억원 - 어떻게하면 100억원, 200억원으로 불릴 수 있을까 그는 오늘도 신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LG 사내 벤처제도 - 자기사업가로 키워 드립니다.

LG는 사원들의 창업 마인드를 고무시키고 잠재되어 있는 사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기업 최초로 벤처제도를 실시, 사원들에게 자금과 기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LG / 인재개발위원회
http://www.lg.co.kr